

출판계 움직임

출협, 새해 사업계획 설문조사

출협은 88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범출판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책의 날 기념사업 ▲출판경영자 세미나 ▲전국도서전시회 ▲국제교류 ▲청소년도서 선정보급 ▲출판인대학 운영 ▲출판인감 발행 ▲남북대행 ▲회관관리 ▲회비제도 등 15개 사업에 대해 모두 70여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출협은 오는 11월30일까지 설문 응답이 모아지는 대로 그 결과를 「출판문화」 12월호에 발표하는 한편, 새해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출협, 豫算特委 구성기로

출협은 18일 열린 상무이사회에서, 8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준비위원 17명을 다음과 같이 선임했다.

△상임진=임인규, 권병일, 김낙준, 전병석, 김언호, 황수원, 김진홍, 임홍조, 이두영

△회원=김시환, 김준식, 남 용, 김재원, 박맹호, 이승하, 허창성, 이기웅(이상 관련단체장 및 협의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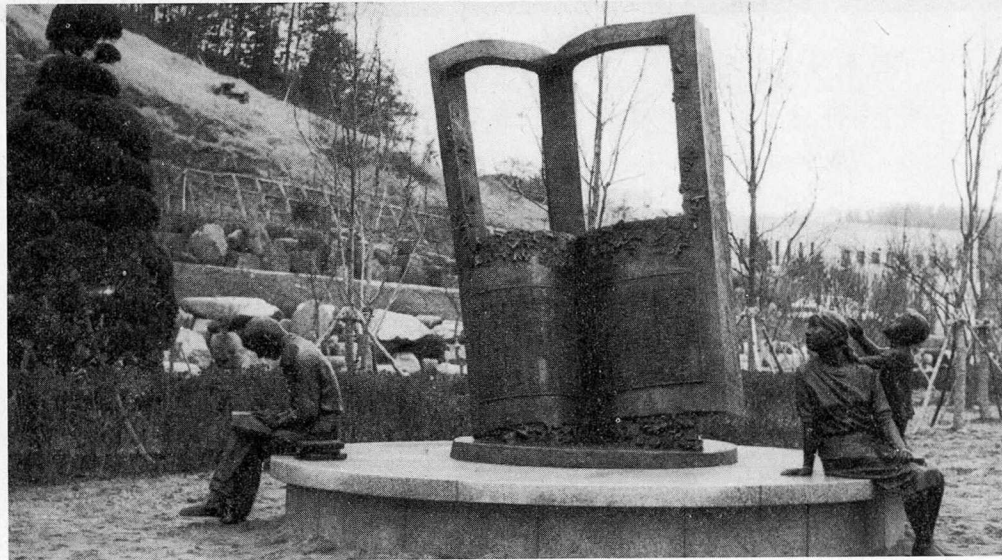
출판인, 제지공장 시찰

출협은 국내 최대의 제지업체인 '계성제지'가 이번엔 새로운 출판용지를 개발, 그 용지별 특성 및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오는 28일 동사를 시찰할 계획이다.

참가범위는 출판사의 대표자 및 편집·제작책임자로 1사 2인 이내, 신청마감은 11월26일까지.

제3회 '인쇄문화상' 수상자 선정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허철중)가 시상하는 제3회 인쇄문화상 수상자로 金榮錫(태양당인쇄 회장=경영관리부문)·李圭鎔(중앙전자 부사장=기술부문)·朴泓九(회화사 대표=특별부문)씨 등 3인이 선정됐다.



신속중인 국립중앙도서관 뜰에 세워진 '책의 날' 기념상.

'책의 날' 記念像 제막

국립중앙도서관 뜰에...책의 고마움 새겨

올해 처음 선포된 '책의 날' (10월11일)을 기리는 기념상이 11월25일 신속중인 국립중앙도서관 뜰(강남구 서초동 소재)에서 제막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임인규)에 의해 세워진 이 기념상은, 등근 화강암 받침돌 위에 펼쳐진 책과 그

둘레에서 부모와 어린이 일가족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의 청동조각상으로 되어 있는데, 책면에는 책의 고마움과 책읽는 사회를 기리는 '책의 날을 받드는 글'이 새겨져 있다. 기념상의 크기는 가로 4미터, 세로 3.5미터, 높이 3미터. 제작은 조각

가 沈貞秀교수(숙명여대)가 맡았다.

이 기념상은 당초 지난 10월 24일 제막될 예정이었던 것이 제작상의 차질로 연기됐었다. 그에 따라 출협은 25일 오후 3시 제막식을 갖기로 했다.

	NEW DELHI INDIA WORLD BOOK FAIR	5-15. II
	BOLOGNA ITALY FIERA DEL LIBRO PER RAGAZZI	7-10. IV
	GENÈVE SWITZERLAND SALON INTERNATIONAL DU LIVRE ET DE LA PRESSE	11-15. V
	ANAHEIM, CA USA ABA TRADE EXHIBIT	28-31. V
	FRANKFURT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ANKFURTER BUCHMESSE	5-10. X

국제도서전에 참가할 포스터

새해 '국제도서전' 참가 확대

출협은 출판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적극적인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 새해에는 참가대상 국제도서전시회를 중전의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국제도서전에 참가하기는 1961년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처음. 그후 64년에는 이태리의 볼로냐 아동도서전, 76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동양학연구협회 도서전이 추가됐고, 올해에는 스위스의 제네바 국제도서전에도 처음 참가했다. 출협은 이들 도서전에 더하여, 88년에는 인도의 뉴델리 세계도서전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

국서적상협회 도서전에도 각각 참가할 계획이다.

출협은 참가할 국제도서전이 늘어남에 따라 회원사들부터 참가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마감은 오는 11월30일까지이다.

▲제8회 뉴델리 세계도서전(인도 2.5~2.15) ▲제40회 동양학연구협회 도서전(미국 샌프란시스코 3.25~3.27) ▲제25회 볼로냐 아동도서전(이태리 4.7~4.10) ▲제2회 제네바 국제도서전(스위스 5.11~5.15) ▲미국서적상협회 도서전(캘리포니아 아나하임 5.28~5.31) ▲제40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10.5~10.10)

著作權 중개업 14개사 허가신청

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신청 업소가 11월10일 현재 모두 1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신탁관리업 신청업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대표 朴權石) 한 곳 뿐이고, 나머지는 대리업이거나 중개업 또는 양자 겸업을 신청하고 있다.

대리·중개업 신청업소는 인터코 저작권기획, 신원기획, IPS(시사영어사), 연협출판진흥, 범한서적, 金·宋합동법률사무소, 문학사상사, 일본출판정보사, 영문사, 한국이데아 에이전시, 서울문화기획 등이다.

書聯 서울지구 임원 개선

전국서적조합연합회 산하 서울동작·은평지구위원회 임원진이 다음과 같이 개편됐다.

▲동작지구위=위원장 유재호(세종서점)/부위원장 박병식(진영서점) 이성주(동작서점)/총무 김진학(중앙서점)/감사 우봉재(우성서점) ▲은평지구위=위원장 양동훈(글밭서점)/감사 박용달(백마서점) 이중팔(삼일서점)

教保文庫 사장에 愼東宰씨

교보문고 대표이사 사장에 愼東宰씨(55·사진)가 11월1일 새로 취임했다. 그에 따라 전임 孫錫來사장은 대한교육보험으로 轉任했다.

창립 6년6개월(81년 5월1일 개점)만에 5대째 대표이사로 취임한 愼東宰는 서울대商大 출신으로 교보빌



신동재 사장

딩관리주식회사 사장을 역임, 작년 이래 교보문고 상임감사로 재직해 왔다.

한편 陳昌甲 상무이사는 같은 날 짜로 의원 해임됐으며, 崔哲模 관리부장이 새로 이사로 승진했다. 그동안 외국서적 영업을 담당해 오던 孫在完이사는 유임, 국내서적 영업을 지를 아우르게 됐다.

한국출판서 '두고 온山河展'

한국출판판매주식회사(대표 여승구)는 특별전시로 '두고 온山河展'을 11월2일부터 12월5일까지 동사 1층 전시실에서 갖는다.

이 전시회에는 조선시대에서 해방후까지 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 북한지역에 관계된 각종 도서 120종과 안내첩·엽서·지도 등 관계자료 29점이 전시된다.

한편 이 전시회에 출품된 자료들은 동사가 벌이는 제8회 고서경매전(11월 21일~28일) 기간 동안 경매된다.

'남' 출판사, 강남 이전

그동안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던 남출판사(대표 趙相浩)가 지난 11일 강남구 서초동 1625~11로 이전했다. 전화는 587-2051~4.

'태평서적' 120평 확장 개업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에 자리잡고 있는 '태평서적'이(대표 李健浩)가 매장을 120평으로 확장, 지난 11월17일 문을 열었다.

李씨는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제과점을 경영해 오다가 2년반쯤 전에 서점업으로 전업, 그동안 20평 규모의 서점을 운영해 왔었다.

李江魯교수 출판기념회

하정 이강로 교수(신구전문대·국어학)의 고회기념 문집 「한글과 한자의 만남」 출판기념회가 11월21일 오후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0층 보혜미안에서 열린다.